

기록과 지식·정보

기록의 지식·정보 자원화를 위한 시론적 분석

Record, Information, Knowledge : A Preliminary Study for Knowledge & Information Resources of Records

김명훈(Kim, Myoung-hun)*

1. 머리말
2.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과 지식·정보로서의 필요성
3. 기록과 정보, 지식
 - 1) 기록과 정보
 - 2) 기록과 지식
4.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제언
5. 맺음말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sjmhwdhappy@hanmail.net).

■ 투고일 : 2017년 9월 26일 ■ 최종심사일 : 2017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0월 19일

〈초록〉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기록이 지닌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기존의 연구성과 및 사례들을 기반으로 고찰하였다. 기록의 생산모태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방식 및 업무패턴의 변모에 따라 종래 비현용단계에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탈피하고, 조직 경영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가치 역시 중시되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최근의 업무환경 변화상을 살펴본 후,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정보로서의 속성 역시 강조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서구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록과 정보의 관계를 고찰한 후, 이어 최근의 업무환경에서 정보를 대체하는 개념인 지식과 기록의 상관관계와 함께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계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호주 및 영국, 미국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연계시키기 위한 최근의 기록학계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 영역의 현황과 함께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관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록, 아카이브, 정보, 지식, 정보자산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records as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that are illuminated by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nowadays based on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examples. As the production mode of records changes, it is possible to avoid the tendency to prioritiz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when keeping record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operating mode and the work pattern of an organization, the value of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is also importa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 in Chapter 2 and then examines attributes not only as evidence but also as informa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rds and the information that has been discussed in western academic circles since the 1980s in Chapter 3. With this, it also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record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In Chapter 4, it reviews recent trends to link records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i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the current state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ree aspects.

Keywords : Record, Archive, Information, Knowledge, Information Asset

1. 머리말

최근 전자기록 환경을 맞이하여 기록관리 영역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기록의 생산 모태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방식 및 업무 패턴이 변모하였고, 주로 종이로 생산되었던 기록이 수많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결부하여 종이기록 시대에 정립된 기록에 관한 정의 및 속성, 기록관리 방식 등이 대대적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목적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은 조직 업무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기록 생성 모태로서의 조직의 운영방식 및 업무 패턴의 변화는 전자기록의 의미 및 목적, 활용도 등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AIIM International Europe, DLM-Forum 2002, 8).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구 기록학계에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영역은 현

용기록관리 단계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현용기록관리 단계에서 수행되는 각종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종이기록 환경에 비해 강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현용단계에서의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이 재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원하면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을 넘어 정보 자산으로서의 가치 역시 증시되고 있으며, 비현용 단계에서의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 경영과 업무 수행에 실익을 주는 현용단계에서의 기록관리 역할 역시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서구 학계에서는 기록이 지닌 정보 및 지식자산으로서의 속성과 함께, 정보 및 지식관리와 연계된 기록관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는 논의들이 서서히 제시되고 있다. 전자의 논의는 그간 간과되어 왔던 기록이 지닌 정보 및 지식자산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조직 내 업무상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며(Yusof & Chell 2002; Atherton 1985~1986; Delmas 2001; Taylor 1983; Cook 1984; Campbell 1989; Eiring 2002; Sutcliffe 2003), 후자의 경우에는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 내지 ‘역사사료의 선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직 내 정보 및 지식관리의 역할 역시 기록관리 영역이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로 모아진다(Scott-Jones 2016; Duranti & Xie 2012; South Africa Parliaments 2015; Hughes 2003; Duffy 2001; Saffady 1998; ARMA 2000; Pemberton 2004; Toms 2004).

이러한 동향은 기록관리 실무 영역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록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에서는 기록의 정의에 ‘정보’ 개념을 포함시킴과 더불어 조직과 업무에 실익을 주는 기록관리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¹⁾

1) 호주 국가표준인 AS 4390을 토대로 제정된 ISO 15489에서는 기록을 ‘기관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의 수행이나 업무의 처리행위 속에서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하고 접수하며 유지한 정보’로 정의하며, 기록을 업무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산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AS 4390의 기록 정의에는 ‘정보’란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ISO 15489에서는 AS 4390에서 추후의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논외로 했던 ‘정보’의 개념을 기록의 정의에 포함시켰고, 아울러 AS 4390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해결지 못한 기록관리의 이점을 추가시킴으로써, 초보적 형태이지만 전자기록 시대에 조직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전략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기록의 정의에 ‘정보 자산’(Information Asset)이란 개념을 추가해 이와 같은 최근의 경향을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 호주 NAA와 영국 TNA, 미국 NARA에서는 기록관리를 정보관리 및 지식관리 영역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의 지평을 확장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역역 및 민간기관들에서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연계시키기 위해 실제 시도된 사례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을 지식·정보 자원으로 인식하고 현용기록관리의 효용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미약하다. 우리나라 국가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문화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선진 기록관리체제 구축”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 목표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록정보의 자원화”를 선정하였지만, 조직 경영 및 업무 수행에 실익을 제공하는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의 활용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책정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료로서의 기록을 지식·정보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 기록을 온라인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지식·정보 자원화로 명명한 것일 뿐, 최근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강조되고 있는 지식·정보 자산으로서의 기록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다행이도 국내 기록학계에서도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김익한(2004)은 레코드 컨티뉴엄 논리를 기반으로 기록을 지식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록관리를 반영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였고, 노정란(2005)은 기록과 지식 및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관관계에 대한 조명을 기반으로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통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출발점으로 실제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통합시키기 위한 사례연구 역시 제출되었다(최지현 2012; 어은

(Julie McLeod 2003, 72). 현용기록관리의 강화와 관련된 ISO 15489가 지닌 함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김명훈(2009, 제3장) 참조.

영 2010; 서광식 2006; 김익한, 김성진 2004). 이상의 연구들은 기록과 지식,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상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에서 일정 한계를 지니지만, 아직 국내 기록학계 전반에 걸쳐 기록을 지식·정보 자산으로서 파악하려는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선구적 의미를 지닌 연구성과들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는 실제 업무에서 필수적인 지식·정보 자산으로서 기록을 간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실익을 담당하는 현용기록관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국내외 학계의 선행연구 및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시론적 연구로, 기록과 정보, 지식 간의 관계를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에서의 현용기록관리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록생산 모태라 할 수 있는 최근의 업무환경 변화와 함께 지식·정보로서의 기록의 인식 필요성을 살펴본 다음, 3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기록과 정보에 관한 논의를 고찰한 후, 최근의 업무환경에서 과거의 정보(Information)를 대체하는 개념인 지식(Knowledge)과 기록관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4장에서는 기록과 지식을 연계시키기 위한 최근의 기록학계 동향을 살펴본 후, 지식·정보 자산으로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에서의 제도적 개선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과 지식·정보로서의 필요성

기록은 조직의 공적인 활동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축적된 산물이다. 따라서 그동안 종이기록 환경에서는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19세기 이후 근대 기록학의 출발점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실증주의 사조는 원문비평(Textual Criticism)에 근거해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역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근대 이후 기록학 영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을 온전하게 관리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Wallot & Fortier 1998, 365). 20세기에 들어 보편화된 관료제는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킨다. 기록 생산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리한 관료제는 문자로 작성된 기록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는 문서주의를 근저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Jenkinson은 기록이 지닌 있는 그대로의 증거적 속성을 아카이브의 본질로 파악한다. 즉 Jenkinson은 아카이브의 본질을 기록이 지닌 가치의 중립성에 두었는데, 일회성 기록 내지 사본 등을 제외한 기록은 가치의 중립성에 기초하여 동등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를 기초로 Jenkinson은 아카이브를 공식적 보존내력을 유지한 채 공적 활동으로 생산·수집되어 공신력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 보존되는 문서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온 것에서 생겨나는 기록에 대한 신뢰성 및 불편부당성과 함께, 기록은 업무 중 자연적으로 축적된다는 자연성과 전체 기록과의 상호연계성이란 본질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Jenkinson 2003, 8-9). 이로 인해 업무자가 생성한 그대로의 기록을 강조하는 Jenkinson의 증거 개념이 도출되며, 따라서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 역할이 기록전문직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은 전자기록 시대에 접어들어 예전보다 더 강화된다. 그 이유는 내용과 구조, 맥락이 각기 분리되어 존재하는 전자기록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수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행위의 내역을 반영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종이기록처럼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기록을 업무 내역을 수록한 내용으로서 보다는 업무행위에 대한 증거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Cook 2001, 19), 따라서 업무행위를 반영한 증거를 제공함과 함께 생산맥락인 기능 및 활동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ISO 15489의 전신인 호주의 AS 4390에서는 기록을

‘업무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산 연원이 되는 기능·활동·처리행위와 부단히 연계되어야 하는 객체’로 정의하며, 기록을 데이터 내지 정보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Roberts 1998). 이러한 기록이 지닌 증거성과 행위와의 연계를 통한 맥락성은 기타 유형의 정보와 기록을 구분 짓게 하는 핵심 요소로,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개념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야기된 기록생산 환경의 변화는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을 넘어 지식·정보로서의 가치 역시 주목케 한다. 기록은 조직 및 업무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조직구조 및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는 곧 기록의 목적, 내용, 활용도 등의 변화를 수반케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록생산 모태로 작동해 온 관료제는 단순 서무 및 관리 업무의 과다, 지시 내지 보고 업무의 과중 및 기록의 홍수, 비능률적인 업무체계 등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정 한계를 노정해왔다(권기현 2004, 12). 아울러 거대화 경향으로 비판받는 관료제의 본격적 확대과정 속에 조직의 계층구조는 정책결정자층이나 실무자층 보다는 중간관리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들 중간관리층은 조직의 계층구조 내에서 주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추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염재호 2002, 7-8).

하지만 조직은 주어진 환경 하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편제한 사회 단위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최근의 환경 변화는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전업화 및 계층화 경향을 탈피하여, 조직 내지 부서 간의 명확한 경계가 와해되고 다자간의 연계 속에 업무 및 인력, 정보 등을 공유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조직운영 방식은 매트릭스조직·네트워크조직·수평조직·가상조직 등 가변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향후 기록생산의 모태인 조직의 운영은 과업 중심적인 업무체계, 다자 조직의 네트워크화,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 활용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²⁾

특히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야기된 시스템은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의 도입은, 그동안 조직 내 계층간 의사소통의 기지국 역할을 담당해 온 중간관리층의 역할을 대신하며 조직 내 정보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로이터사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실제 선진국 노동인구의 70% 이상이 방대한 양의 정보 통제에 실질적인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피로 신드롬(Information Fatigue Syndrome)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한 컨설팅트사의 조사에서는 업무시간의 15%를 정보의 생산 및 관리, 분배에 소비하는데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시간과 노동 비용이며, 모든 노동인력 업무의 60%는 기록 및 정보를 활용해 처리하게 되는데 평균적인 노동인력은 하루 일과 중 65% 이상을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소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iring 2002, 21-22).

한편 최근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공공영역은 업무의 연계 강화, 프로세스 기반 업무수행,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정보의 공유 특성을 보이고 있다(Granath, Alariksson, Axelsson 2004, 25-32). 아울러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및 지식·정보 기반 국가체제 개편 등 미래 정부의 설계방향 설정은 지식·정보를 필수 공공재로 인식케 하고 있다(송희준 2002, 20-23). 이러한 조직 운영방식의 변화는 곧 기록의 의미 및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조직의 운영을 위해 또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록이 갖게 되는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필요성은 날로 제고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문서주의에 기반을 둔 관료제 하에 기록을 위계화 된 계층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자 업무 수행내역을 수록한 증거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조직운영 환경에서는 업무의 과정 및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성격을 넘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지식·정보 자원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명훈 2009, 321-334). 이에 다음 장에서는 그동안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록과 정보, 지식의 관계 및 지

2) 이러한 조직 유형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박우순(1998, 112-132) 참조.

식·정보자원으로서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논지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3. 기록과 정보, 지식

1) 기록과 정보

전통적으로 기록학 영역에서 기록을 정의할 때 행위의 내역을 반영한 유일성을 지닌 기록의 속성을 감안해 증거로서의 속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내역이 반영된 결과물이란 점에서 정보로서의 속성 역시 지니고 있다.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속성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Schellenberg가 언급한 정보적 가치 개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Schellenberg 기록이 생성된 본래의 목적이 사라진 후 새롭게 생성되는 2차적 가치범주의 하나로 정보적 가치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보적 가치는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Information) 때문에 부여된 가치로,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개인 및 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특정 인격체(Person)나 장소·건물·물건 등과 같은 사물(Thing), 그리고 활동·계획·사건·일화·문제 등 인격체나 사물에 발생하는 현상(Phenomena) 등에 관한 것이다(Schellenberg 2005, 31-32). 아울러 Schellenberg는 정보적 가치란 기록의 맥락 내지 출처가 아닌 기록 속에 내재된 정보로부터 나온다고 파악하면서, 정보적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유일성, 형식,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유일성은 다른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내용적 정보의 유일성과 기록이 지닌 희소성을 의미하며, 형식은 기록 안에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요성은 개인마다의 주관성으로 인해 정보적 가치의 판단이 제일 난해한 부분으로, 유일성과 형식 판단을 거친 기록을 대상으로 중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Schellenberg 2005, 37-43). 이를 감안한다면 Schellenberg의 정보적 가치 개념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역사적·문화적 의미로서의 내용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논의되는 실제 업무 중에 필요한 정보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라이프사이클과 결합된 가치평가론이 형성된 배경이나 기록과 아카이브를 양분시킨 Schellenberg의 사고를 감안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보에 대한 Schellenberg의 인식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는 Schellenberg가 언급한, 최근의 정보 개념에 해당하는 1차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chellenberg는 기록이 생산된 본래의 목적인 1차적 가치를 재무적·법무적·행정적 가치로 구분하며, 공공기록은 이러한 가치를 위해 생산된다고 보았다(Schellenberg 2005, 30-31). 하지만 Schellenberg는 이러한 가치를 지닌 기록은 현재의 업무에 필요로 하는 동안만 보관한 후 처리해 공간 및 관리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어야 하며, 역사 내지 연구 상의 목적과 관계없는 기록들이 시의적절 하게 폐기된다면 기록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Schellenberg 2002, 43), 2차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즉 Schellenberg에게 있어서의 1차적 가치란 업무상의 참고활용 목적으로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소극적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해왔다고 볼 수 있다(Fischer 2006, 26).

기록학 영역에서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속성을 강조한 논의는 1980년대 중엽부터 본격화되었다. 기록관리는 주어진 기록을 단순히 관리하는 실무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기록이 생성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식량과 같은 원료의 생산이 인간의 근본적인 활동이었다면,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원료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2차 산업이 인간의 근원적인 활동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이후 문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관료제의 보편화 및 문서 생산도구의 발전 속에 문서화된 기록의 생산이 인간 활동의 근간으로 이루어었다면, 이러한 문서화된 기록 속에 내재된 정보를 정보기

술을 활용하여 제품으로 생산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기록 속의 정보를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Delmas 2001, 29).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속성을 강조한 논의는 우선 활용적 측면과 관련된다. Atherton은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을 강조한 논의를 제기하였는데, 북미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되어 온 현용기록관리와 아카이브 관리 사이의 엄격한 분리 상황을 비판하며 기록의 활용적 측면에서 행정적 효용성을 강조한다. 즉 기록은 미래의 연구자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닌 행정적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것이며, 따라서 기록의 가치는 우선적으로 행정상의 활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기록 생산자 및 이용자의 기록 활용을 중심으로 모든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Atherton 1985~1986, 47-48).

한편 1980년대 들어 북미권의 기록학계에서는 기록관리의 역할이 역사문화적 목적인가 아니면 정보관리 목적인가에 대해 첨예한 논쟁에 전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Taylor는 정보화 시대를 역사적 전환으로 인식하며, 기록 관리 영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을 광범위한 정보자원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기록학이 정보학을 적극 수용하면서 새로운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Taylor 1983, 30-34). 즉 기록은 미래의 역사연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현재의 활동과정 중에 필요한 정보로서 생산·활용됨을 감안할 때, 현용단계에서의 업무적 필요에 부응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록관리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Taylor는 기록의 업무적 효용에 대한 기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역사 사료 중심의 인식을 탈피하고 자동화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기록관리는 변화하는 동시대의 환경에 부응해 변모해야 함을 전제하면서, 최근의 정보화 시대에 기록관리는 기록정보의 관리 및 보존, 활용을 통해 이용자와 기록을 긴밀히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aylor 1983, 35-36).

이처럼 Taylor가 제기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기록을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써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논의 역시 제기되었다. 기록관리는 기록 속에 내재된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분야가 아닌 기록화 된 매체를 관리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록관리는 정보관리라는 전체집합에 포함된 작은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다(Campbell 1989, 146). 이로 인해 여전히 기록관리 영역은 기록의 등록·색인화·저장·처리 등과 같은 기술적 관리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록이 지닌 업무상의 활용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Eiring 2002, 20). 기록전문직은 기록을 정리·평가·보존하고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상 스스로를 정보관리의 주류로 인식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즉 정보관리는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의 계획 및 생산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록관리는 여전히 조직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조직에 일익을 담당하는 정보관리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최근의 정보화 사회는 기록학의 의미 및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Delmas 2001, 29). 19세기 및 20세기의 아카이브는 주로 역사사료를 축적하는 의미를 지녔다면, 21세기의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 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즉 기록관리 영역에서 역사사료의 축적은 여전히 중요한 과업이지만, 기록은 업무의 과정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생성됨을 염두에 둘 때 기록관리는 과거와 같은 역사 편향적 시각을 넘어 현용적 목적 역시 중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Campbell 1989, 149-150). 특히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은 역사연구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둘 때, 전자기록관리는 기록의 4대 속성을 유지·보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은 더 이상 업무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현행 조직의 영위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Sutcliffe

2003, 52-53).

아울러 그동안의 종이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 영역은 과거 지향적이었던 반면 최근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정보화 시대에 기록관리 영역은 스스로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Campbell 1989, 149-150). 따라서 최근의 정보사회 환경에서 기록전문직은 기록관리를 다양한 시각 및 학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에서의 학제간의 협력은 대부분 인문학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급속히 진화해가는 정보화 환경 속에 인문학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학문 영역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Burell 2000). 이를 위해 역사학, 행정학 등 그동안의 유관 학문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학 및 정보기술, 컴퓨터학 등과의 학제간 유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Delmas 2001, 30-31). 아울러 기록관리 절차 및 결과물은 정보를 발견하고 검색·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Sutcliffe 2003, 53).

2) 기록과 지식

21세기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이상과 같은 기록과 정보를 연계시키기 위한 논의는 한 단계 진전하여, 기록과 지식의 관계를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과거 정보(Information) 개념은 데이터를 특정 목적으로 가공한 수많은 데이터들의 기술적 집적물이라고 한다면, 최근 정보의 업그레이드 된 개념인 지식(Knowledge)은 업무적 맥락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적재적소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믿음, 경험, 상황, 판단 등과 결합된 정보라 할 수 있다(하정출 2005, 16-17). 즉 정보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의 기술적 집적물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이러한 정보들을 해당 업무와 구체적으로 연계시켜 활용도 및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보다 진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의 업무적 활용과 연계

되어 시작된 정보관리는 업무패턴을 정형화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정보관리 개념을 넘어 지식관리는 업무수행 방식을 변모시키고 새로운 업무적 가치를 창출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재규 2003, 96-114).

기록의 업무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계방안을 모색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그 관리대상이 되는 기록과 지식의 상관성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Pemberton은 기록과 지식의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기록은 업무활동 과정 중에 생성되어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두지만, 지식은 미래의 업무활동을 위한 정보자산으로서의 변화하는 가치(Transformational Value)에 주안점을 둔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양자의 기본적 속성을 기반으로 기록은 특정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고정적 가치를 지니게 되지만 지식은 현재의 다양한 상황 및 필요성에 부응하며 새로운 가치가 끊임없이 발굴되며, 기록은 집합적 단위의 맥락을 중시하지만 지식은 개별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고 제시한다(Pemberton 2004, 48-49).

반면 양자 간의 공통분모 역시 존재한다. 기록은 조직의 운영 및 업무수행 중에 자연스럽게 생성·축적된다는 점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록 속에는 업무의 행위내역을 수록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정보를 함유한다는 점에 있다(김익한 2004, 141-143). 이와 더불어 지식은 기록화 된 정보를 기반으로 창출된다는 점에서 지식의 근간 내지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지식은 문서나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내재된 내용의 단순한 처리결과가 아닌, 기록화 된 정보의 검색·관찰·이해 및 숙지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록과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ARMA 2000, 6-7). 암묵지조차 업무 내지 기타 활동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화 된 정보를 검색해 알고 이해함으로써 창출된다는 점에서 기록화 된 정보는 지식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Saffady 1998, 2).

이러한 면에서 기록관리는 지식관리와 밀접한 연계를 맺게 된다. 지식관리는 조직내 지식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함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으로 지식의 생산·저장·정리·검색·확산 및 보급 활동을 포괄한다면, 기록관리 역시 조직내 기록화 된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함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으로 기록화 된 정보의 생산·저장·정리 및 조직화·검색·처리 활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성을 지닌다(ARMA 2000, 6-7). 아울러 기록관리 영역은 조직에서 생성된 기록정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일 매일의 기록관리 업무는 곧 지식관리 업무로 파악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와 지식관리 양자는 조직에 유사한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Hughes 2003).

이러한 기록과 지식의 상관성을 기반으로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서서히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첫 번째 방향은 기록관리의 역할 확대이다. 즉 종래 종이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 영역이 지녀왔던 수동적인 보존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일익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Sutcliffe는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은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을 보관하는 정보의 폐기장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기록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기록을 정보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록관리 전략을 지식관리 및 콘텐츠관리 등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tcliffe 2003). Hughes는 기록전문직이 조직 내 지식자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조직의 지식관리와 관련을 맺어왔다고 파악한다. 기록전문직은 그동안 조직이 무엇을 수행하고 기록화 된 정보가 어떻게 생성·관리·활용되며, 특히 조직 내에서 무엇이 현재 필요하고 필수적인 핵심 정보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최근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식관리는 지식관리자들의 영역만으로 국한될 수 없으며, 기록전문직은 조직

의 지식관리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Hughes 2003).

기록은 조직의 업무과정에서 산출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최근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야기된 조직구조 및 업무방식의 변화는 기록이 생산·공유·통제·활용되는 방식 역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곧 종래와 같은 보존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활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모됨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최근의 조직 운영 환경에 필요한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의미와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기록 속에 잠재된 지식 자원을 기반으로 조직에 실익을 주는 기록관리를 위해 지식관리와의 연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Scott-Jones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기록관리 영역에 지식관리의 역할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세계적인 전자정부의 추진 속에 공공영역에서는 무결성을 지닌 기록 생산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가 기록을 통해 수행되는 상황에서 기록 속에는 선행 업무추진 정보 및 업무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지식·정보가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기록관리와 달리 지식관리는 법을 통해 강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형식지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영역은 기존의 역할을 확장해 조직 및 업무에 실익을 주는 지식관리의 역할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cott-Jones 2016).

Hinton-plain 역시 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식·정보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각종 조직에서는 전사적 지식·정보 관리 전략을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를 가로질러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를 획득·저장·접근·활용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관리 분야는 업무의 결과로 주어진 기록을 관리하는 고립된 영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록 역시 조직 내의 중요한 지식·정보 자원임을 염두에 둘 때, 기록관리 분야 역시 전사적 지식·정보관리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관리 영역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게 된다(Hinton-plain 2008).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연계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한 대담으로 기록관리 영역의 이론 및 방법론이 지식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연계시키는 방안이 제시된다. 우선적으로 기록관리 영역의 이론과 방법론이 지식관리의 개발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지식관리는 최근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 환경에 대응해 생성된 전략적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이론 및 개념적 기반이 미약한 채 전산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Duffy 2001, 64-65). 특히 지식관리 시스템은 '업무의 맥락'에서 어떻게 정보가 이용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개발되어 온 한계를 지닌다(Toms 2004, 90).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총합이 아닌 세부적인 업무상의 필요에 부합하는 적제적소의 정보라는 점에서 업무와의 연계성을 전제로 하며(Duffy 2001, 62), 따라서 체계적인 지식관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Saffady 1998, 13-15).

특히 기록관리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지식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저비용이 소요되는 강점을 지니며,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설명책임, 업무 효율성 등 명료한 성과에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류를 통해 맥락 및 상호연계성을 지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 한계에 직면한 지식관리의 현실적인 대체 방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Toms 2004, 92-93). 이러한 점에서 기록관리 영역은 지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보와 달리 지식은 인간이 각 상황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여 생성하는 관계상 지식은 단순히 기록의 관리 및 처리·검색을 통해 얻어지지 않으며, 아울러 기록화 된 정보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지식 자원으로 다양한 정보기술력은 미가공 된 자원을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Saffady 1998, 2).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록관리 개념 및 방법론은 지식관리를 촉진시키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행위에 대한 완전무결한 증거 및 정보로서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기록관리 영역은 매우 정교한 이론 및 방법론을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Duranti & Xie

2012, 249).

따라서 기록관리와 지식관리 영역은 양자 간의 본질 및 목표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속에 상호 협력관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기록이 생산되는 모태로서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록 속에 있는 어떠한 정보들이 조직 및 업무에 필요한 지식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지식관리 영역에서는 기록 속에 내재해 있는 지식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업무는 기록을 통해 수행되는 관계상 기록 속에는 엄청난 지식이 존재하지만, 모든 기록이 지식은 아닌 관계상 지식의 원천자원으로서 기록 속에 있는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Duranti & Xie 2012, 250).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관리에 일조할 수 있는 기록관리 영역의 세부적인 절차들을 제시한 논의들도 제출되었다. 이중 기록의 평가는 기록에 내재한 가치를 분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지식관리에 일조할 수 있는 절차로 초점이 모아진다. 기록 속에는 방대한 지식·정보 자산이 존재하지만 어떠한 기록이 형식지로서의 지식인지를 분석하는 절차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하였다(Hughes 2003). 기록관리는 지식의 원천 자료가 되는 기록화 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관리시키고 조직 및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록 속의 정보들을 선별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조직 내 지식관리의 성패는 적절한 기록화 된 정보의 생성·축적 및 선별로부터 출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South Africa Parliaments 2015). 따라서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기록 속에 내재된 조직에 필요한 지식자원을 식별·추출함과 더불어 추출된 지식자산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활용시키는 역할이 기록관리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Hughes 2003).

기록의 처분 절차 역시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하는 견해 역시 제시되었다. 기록을 조직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기존의 기록관리 절차 중 처분단계이지만, 지금까지의 처분 방식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대부분의 기록관리자들은 업무자의 업무상에서 어떠

한 기록이 어떠한 프로세스에 필요한지 무관심해왔다(Beastall 1998). 하지만 최근의 조직운영 환경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존의 역할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록관리의 주목적은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신속한 기록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단순히 보존기간을 부여해 시효가 다한 기록을 폐기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보존하는 기존의 역할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는 조직에 필요한 기록 속의 지식을 선별·창출하고 이를 조직의 활동에 투입·활용시키는 조직 경영 전략상의 도구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식관리와 기록관리의 연계는 기록관리 영역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에도 일조하게 된다. 그동안 종이기록 환경 하의 기록관리에서는 현용기록관리 보다는 비현용 단계의 기록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소위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의 선별 및 보존이 되며, 업무 수행에 일익을 담당하는 현용 기록관리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왔다(Atherton 1985-1986, 44). 하지만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 일익을 주는 현용 기록관리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김명훈 2007). 그렇다고 Jenkinson이 언급한 소위 '신성한 증거를 수호하는' 기록관리의 본원적 사명이나 기록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종이기록 환경에서 저평가되어 온,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실익을 주는 기록관리의 역할이 지식관리와의 연계를 통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Hare 1998). 지식이 업무의 필수 자산으로 된 최근의 업무환경은 분명 기록관리를 조직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며, 공적인 지식관리는 기록관리 정책 및 절차 수립을 위한 전제가 됨과 아울러 조직 내 기록관리의 효용성을 제고시켜 줌으로써 기록관리의 기반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ARMA 2000, 6-7).

4.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제언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듯 최근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이 서서히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호주 NAA에서는 전자기록 시대를 맞아 기록을 유용한 정보자원으로 인식하고,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조직 내의 정보관리 및 지식관리와 상호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록관리·정보관리·지식관리 영역은 관리방식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측면을 지니지만, 이들 세 영역은 조직의 영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목표가 동일하다. 아울러 이들 3자는 모두 기록화 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또한 ‘기록화 정보시스템’(Recorded Information System)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록관리·정보관리·지식관리 영역은 조직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록화 정보시스템 개발 시에는 세 영역의 관리 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생산 이후의 콘텐츠 확보를 통해서가 아닌 생산단계 내지 그 이전단계부터 이들 세 영역을 염두에 두며 기록으로 생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NAA 2001).

최근 들어 호주 NAA에서는 기록이 지닌 정보자산으로서의 가치 강화를 위해 ‘Digital Continuity 2020’ 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시키고 있다. Digital Continuity 2020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조직에서 정보 자산을 관리하게 하는 디지털 정보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착수된 호주 전 정부기관 차원의 정책이다.³⁾ 호주 NAA에서는 정부의 업무 중 생성·접수·유통된 정보를 기록으로 정의하며, 디지털기록 형식으로 생성되는 호주 정부기관의 정보는 연방정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경제적 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⁴⁾ 이러한 사고를 근거로 Digital Continuity

3) <http://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digital-transition-and-digital-continuity/index.aspx>.

2020에서는 현재 조직 내의 모든 정보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정보들을 지식적 자산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로 기록관리를 설정함과 함께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들의 연속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Digital Continuity 2020은 디지털 정보관리를 모든 정부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시킴으로써 정부 업무의 효율성, 혁신성, 상호운용성, 정보 재사용 및 책임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기록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까지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형식으로 유지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NAA 2016).

영국 표준원에서는 이용자를 위한 맥락에서 ISO 15489를 정리한 『BIP 0025』를 통해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 영역은 조직 내 지식관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 최근의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아 민간부문이든 공공영역이든 업무는 기록과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현재 아키비스트, 레코드 매니저와 정보관리자, 지식담당자의 기능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라는 전제 하에, 이들 모두는 ‘정보 건강성’(Information Health)을 위해 긴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제시한다(BIP 0025-1, 2.3.1). 이와 함께 기록을 과거와 같이 역사사료로 파악하는 시각을 탈피하고 조직 내의 지식자원이 축적된 핵심 자산으로 인식한다. 즉 기록은 조직과 공급자, 고객에 대한 축적된 지식의 저장고이며, 적절하게 관리하면 각종 이해당사자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귀중한 핵심 정보로 가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록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업무 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과거에는 불가능했거나 지나치게 고비용이었던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해 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BIP 0025-1, 3).

또한 효과적인 지식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록은 지식의 원천 자

4) <http://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getting-started/index.aspx>.

료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록은 업무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기록 안에는 오랜 기간 업무자들의 업무행위 노후가 축적되어 있으며, 보관된 기록으로부터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BIP 0025-1, 6). 기록관리 자체가 바로 지식관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시스템은 정보의 체계적인 저장 및 색인화, 그리고 접근·이용·통제 등의 수단을 통해 지식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BIP 0025-1, 3), 따라서 기록관리 영역은 지식에 대한 조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록 속에 담긴 정보로부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BIP 0025-1, 3).

한편 영국 TNA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이하여 기관의 사명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즉 TNA는 영국의 기록문화 유산을 관리·보존하는 문화유산기관임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정보를 관리·보존하고 다른 조직에 제공하는 정보관리의 역할을 동시에 설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⁵⁾ 이를 위해 TNA에서는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재사용 규정’(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에 기반을 둔 기관의 공적 과업으로, TNA에서 관리·보존하고 있는 기록 및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공공영역 전반에 걸친 활용을 위해 ‘디지털 연속성 관리’(Managing digital continuity)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부의 모든 디지털 정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도 필요로 할 때 디지털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TNA 2017, 4), 이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및 투명성·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⁶⁾

이와 더불어 TNA는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계 필요성 역시 제시한다.

5) <http://www.nationalarchives.gov.uk/about/our-role>.

6) <http://www.nationalarchives.gov.uk/information-management/manage-information/policy-process/digital-continuity/what-is-digital-continuity/>

단 지식은 기록 및 정보와는 다른 유형으로 일단 전제를 한다. 즉 지식은 개인이나 조직의 경험, 훈련, 통찰력 및 교육의 총합으로 암묵지도 존재하는데 기록 및 정보관리처럼 물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에어서이다. 하지만 기록 및 정보관리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암묵지 역시 적절한 방식을 통해 기록화된 지식으로 변환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⁷⁾ 이에 TNA에서는 영국의 공공부문에서 기록정보관리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영역으로 지식관리 영역을 설정함과 동시에 관련 지침을 홈페이지상에 제시함으로써, 증거로서의 기록을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에 필수적인 지식자산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HM Government 2016).

이처럼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계를 강조하는 논의는 미국 NARA에서도 제시되었다. 기록관리 영역은 기록 내에 잠재된 지식자원이 보다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기록의 양을 줄이고 필요한 기간 동안 단순히 보유하는데 초점을 맞춘 리텐션 정책은 기록 속에 잠재된 지식을 계속 활용케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록관리의 가치는 효용성으로 이는 곧 지식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지식관리는 기록관리 정책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지평을 확대해 줌을 고려할 때 양자 간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관리 방식, 관리기법 및 기술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NARA 201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을 지식·정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록관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기록을 지식·정보 자산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는 기관의 비전을 “기록문화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선진 기록관리체제 구축”으로 설정하

7) <http://www.nationalarchives.gov.uk/information-management/manage-information/planning/knowledge-principles/>

고,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 중 하나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록정보의 자원화”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가치 중심의 기록물 수집으로 기록정보의 자원화 추진”을 선정함과 아울러, 국가 기록원의 주요 임무로 “대국민 기록정보 제공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를 내세우고 있다.⁸⁾

이는 국가기록원의 『2017년 업무 추진계획』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2017년도 국가기록원의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록정보의 자원화 및 활용”을 어젠더로 설정한 다음, “공공기록물의 지식정보 자원화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와 함께 “축적된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로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 제고”를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수립하였다. 아울러 세부적인 추진과제로는 “가치 높은 기록물 수집으로 기록정보의 자원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7, 6-7).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기록을 지식·정보 자원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 경영 및 업무 수행에 실익을 제공하는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과는 거리가 멀다. 즉 기록정보의 자원화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업무로 제시한 내용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책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정리, 역대 정부 주요 인사·해외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보유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현황조사 및 수집, 러시아·미주·유럽지역 3·1운동 관련 소재정보 조사 및 수집이다(국가기록원 2017, 6-7). 이는 곧 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료로서의 기록을 지식·정보 자원으로, 그리고 이들 사료들을 스캔하여 온라인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지식정보 자원화로 명명한 것일 뿐, 최근 전자기록 환경을 맞이하여 강조되고 있는 조직 경영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

8) <http://www.archives.go.kr/next/organ/vision.do>

인 지식·정보 자산으로서의 기록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공공영역은 지식정보화 조류 속에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정보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의 다원화 및 복잡화와 맞물려 기록을 통해 조직이 대응해야 할 각종 법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 조직의 운영을 위해 또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록이 갖게 되는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필요성이 날로 제고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 설정한 공공기록물의 지식정보 자원화로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로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록관리 구현을 위해서는, 앞서 살핀 세계 각국 국립 기록청의 사례처럼 기록관리와 지식·정보관리를 연계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등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과의 보다 세부적인 연계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현행 기록관리법령 상의 기록물에 대한 정의 역시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동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종이기록 환경에서 정립되어 온 보존기록 중심의 인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지식·정보 자산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ISO 15489에서는 기록의 개념을 이전과 다르게 정의

하였다. 즉 기록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행위 가운데 증거와 자산으로서 생산·접수·유지된 정보’로 정의하며(ISO 15489-1 2016, 3.14), 기록이 지닌 정보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 이상 업무의 부산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ISO 30300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Asset) 개념은 조직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ISO 30300 2011, 3.1.2), 기록의 정의에 자산 개념을 포함시킨 것은 기록을 종래와 같이 창고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경영을 위해 지식·정보 등 다른 자산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대상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가기록원 2011, 45-46). 따라서 최근의 기록 생산 및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업무활동과 정보자산 축진제로서의 기록의 역할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의 활용 및 재이용 기회의 증대를 위해 개발된 ISO 15489의 기록에 대한 개념을 반영해야 하며, 더불어 지식·정보 자산으로서의 기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록관리법령 상의 기록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직 내 기록관리의 최첨명 역할을 담당하는 기록관의 역할 역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 영역은 생산자 및 이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Xiaomi 2003, 28-29), 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지식·정보 자산으로서의 기록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상 기관 단위로 편제된 기록관의 역할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된 기록관의 역할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표준에서도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록물 정리 및 인

수, 폐기심사 및 심의, 한시기록 보존, 공개재분류 등 현행 기록관리법령에 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기록관리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조직구조의 재편 내지 통합이나 업무 담당자의 변동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서고나 서버에 보관 중인 과거 기록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山下貞鷹 2006, 134-135). 현재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도 기록 축적을 경시하는 행정문화 및 선임·후임자간의 지식공유 부재 등의 풍토가 만연된 상황에서(정운수 외 2001),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정부운영 패턴을 변화시키고 정부 조직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고객지향형 민주행정 구현을 위해 지식·정보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조주행 2002, 328-333). 이처럼 조직 내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수많은 지식자원이 발생하고 이러한 지식자원은 업무 수행의 신진대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업무 중 생성된 기록을 평가·수집·분류·보관·처리·검색·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山下貞鷹 2006, 132-134). 바로 이러한 역할이 기록관의 역할 재 설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현재의 조직 내 기록관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줄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기록이 지닌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기존의 연구성과 및 사례들을 기반으로 고찰하였다. 기록의 생산모태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방식 및 업무패턴의 변모에 따라 종래 비현용단계에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탈피하고, 조직 경영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가치 역시 중시되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최근의 업무환경 변화상을 살펴본 후,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정보로서의 속성 역시 강조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서구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록과 정보의 관계를 고찰한 후, 이어 최근의 업무환경에서 정보를 대체하는 개념인 지식과 기록의 상관관계와 함께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계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호주 및 영국, 미국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연계시키기 위한 최근의 기록학계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 영역의 현황과 함께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관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고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고는 향후 기록의 지식·정보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다. 기록이 지닌 정보 자원으로서의 속성 및 기록과 지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별로 방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는 주어진 물리적 객체를 기술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록의 의미와 기록관리의 역할을 부단히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최근의 기록 생산환경에서 조직경영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관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제기에 불과하며, 향후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도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기록이 지닌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방식 및 절차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평가는 기록에 내재해있는 고유의 가치를 분석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업무에 필요로 되는 지식·정보로서의 가치를 추출하고 조직화시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활용시키기 위한 토대가 된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활발히 논의되어 온 대부분의 평가 이론 및 방법론들은 기록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의 선별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기록이 지닌 정보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Burrell 2000).

우리나라의 현행 공공기록 평가방식 역시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기록관리법 시행령에 제시된 보존기간 책정기준상의 매우 일반적인 가치준거를 기반으로 일곱 종의 보존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중요 기록물을 선별하는 방식으로는, 조직 경영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선별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기록은 조직의 운영과정 중에 생성되고 조직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위된다면, 평가는 환경 순응에 필수적인 기록 유형을 선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조직이 운영되고 기록이 생성되는 환경은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기록은 이러한 제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조직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는 과거와 같은 업무적 시효가 끝난 기록을 대상으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는 행위로 머무를 수는 없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조직의 영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명훈 2009, 387-388).

또한 업무에 필요한 기록이 지닌 지식·정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의 세밀한 업무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컴퓨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단순 데이터의 집적 및 처리를 담당했던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지식은 세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지식 상호간의 관계 및 지식이 활용되는 최적의 지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의 전자 기록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산 이전 해당 업무는 물론 업무가 수행되는 환경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록과 지식은 업무와의 연계성을 전제로 하게 되며, 양자는 업무과정에 기축한 정보(Process Bound Information)로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김익한

2005, 5-16). 이를 감안할 때 기록의 평가방식에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세밀한 업무분석 절차를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아울러 여기서 도출된 지식·정보 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닌 기록들을 구체적인 업무와 연계해 활용시킬 수 있는 방식 역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국가기록원. 2017. 『2017년 업무 추진계획』.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12.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NAK/S 10:2012(v1.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11. 『기록관리 표준이행 적합성 평가절차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국가기록원.
 권기현. 2004. 『전자정부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명훈. 2007.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업무친화적’ 기록관리 방향성 분석. 『정보관리연구』, 38(4).
 김명훈. 2009. 『전자기록 평가론』. 서울: 신진리탐구.
 김익한. 2004.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2).
 김익한. 2005. 업무과정에 기착한 기록정보시스템 시론. 『기록보존』, 18.
 김익한, 김성진. 2004. 분절형에서 통합형 지식관리시스템으로: K사 지식관리시스템 사례연구. 『지식연구』, 2(1).
 김익한. 2004.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 『기업의 지식정보 관리와 유통』. 서울: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노정란. 2005. 지식경영 관점에서 본 기록관리와 지식경영의 연관 관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박우순. 1998. 『현대조직론』. 서울: 법문사.
 서광식. 2006. 『지식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 A 연구원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희준. 2002. 지식정보화와 미래형 정부 설계 방향. 『지식정보화와 미래 정부 모형』. 2002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어은영. 2010. 『정부산하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지식관리 통합에 관한 연구 : 미시적 관점에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재호. 2002. 지식정보화와 국가 발전. 『지식정보화와 미래 정부 모형』. 2002년 한국 행정학회 기획심포지엄 발표논문집.
- 이재규. 2003. 『지식경영학 원론』. 서울: 박영사.
- 정운수, 백용기. 2001. 공공부문에의 지식관리 도입과 정책 과제. 『사회과학논총』, 17.
- 조주형. 2002. 『행정이론: 21C 지식-정보화 사회의 정부경영학』. 고양: 인간사랑.
- 최지현. 2012.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출. 2005. 『제5물결 디지털 시대와 지식혁명 시대의 지식경영론』(개정판). 서울: 두남.
- 山下貞麿. 2006. ナレツジマネジメントと記録管理. 『情報管理』, 49(3).
- AIIIM International Europe, DLM-Forum, 2002. *Education, Training & Operation: From the Traditional Archivist to the Information Manager*. AIIIM Industry White Paper on Records, Document and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for the Public Sector. AIIIM International Europe, DLM-Forum.
- ARMA. 2000. Knowledge Management: An Overview.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0(6).
- Atherton, Jay. 1985~1986. From Life Cycle to Continuum: Some Thoughts on the Records Management-Archives Relationship. *Archivaria*, 21.
- Beastall, Graham. 1998. Records Management Meets Knowledge Gathering. *Records Management Journal*, 8(2).
- British Standard Institute. 2003. *Effective Records Management—Part 1: A Management Guide to the Value of BS ISO 15489-1(BIP 0025-1)*. British Standard Institute.
- British Standard Institute. 2003. *Effective Records Management—Part 2: Practical Implementation of BS ISO 15489-1(BIP 0025-2)*. British Standard Institute.
- Burell, Mats. 2000. Appraisal and Information Theory. *Principles of Appraisal and Their Application in Electronic Environment: European Models and Concepts*. Arkistolaitos.
- Campbell, Terry M. 1989. Archives and Information Management. *Archivaria*, 28.
- Cook, Terry. 1984. From Information to Knowledge: An Intellectual Paradigm for Archives. *Archivaria*, 19.
- Cook, Terry.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1).
- Delmas, Bruno. 2001. Archival Science Facing the Information Society. *Archival Science*, 1(1).
- Duffy, Jan. 2001. Knowledge Management and Its Influence on the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1(7).

- Duranti, Luciana & Xie, Sherry L. 2012. Knowledge Management & Records Management: Establishing Relationships for Common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Manag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 Eiring, Larry. 2002. The Evolving Information World.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2(1-2).
- Fischer, Laurie. 2006. Condition Critical: Developing Records Retention Schedules.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6(1-2).
- Granath, Per, Alariksson, Stefan, Axelsson, Sverker. 2004. Creating a System for Public Information: The Swedish Aid Agency's Transformation to Electronic Administration. *Records Management Journal*, 14(1).
- Hare, Catherine E. 1998. Records Management in the Next Millennium: Conference Report. *Records Management Journal*, 8(2).
- Hinton-plain, Brad. 2008. On Records,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https://bradhinton.wordpress.com/2008/08/07/on-records-information-and-knowledge-management-strategy>)
- HM Government. 2016. Knowledge Principles of Government.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knowledge-principles-for-government.pdf>)
- Hughes, Ceri. 2003. Blurred Lines: Records Management in the Knowledge Management Arena. *Records Management Journal*, 13(1).
- ISO. 2011. *ISO 30300: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 ISO. 2016. *ISO 15489-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Part 1: Concepts and principles(Second edition)*.
- Jenkinson, Hilary. 1937.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이상민, 오항녕 역. 『기록 관리편람』. 2003.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 McLeod, Julie. 2003. Assessing the Impact of ISO 15489: A Preliminary Investigation. *Records Management Journal*, 13(2).
- Myburgh, Sue. 2004. Competitive Intelligence: Bridging Organizational Boundaries.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4(3-4).
- NAA. 2001. Information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and Recordkeeping. *Archives Advice* 56. (<http://www.naa.gov.au/recordkeeping/rkpubs/advices/advice56.html>)
- NAA. 2016. *NAA Annual Report 2015-16*. (<http://www.naa.gov.au/about-us/publications/annual-reports/2015-16/report-on-performance/information-management/index.aspx>)

- NARA. 2010. Records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 Are they Converging or Diverging? Nancy Burt, Fidelity Investments Records & Information Management with Jill Snyde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Moderating): Group Conclusions. <<http://kmforum.org/blog/wp-content/uploads/2010/03/burt-snyder-records-management-vs-km-04292010.pdf>>
- Pemberton, Michael. 2004. KM & RM: Oil & Wate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4(5-6).
- Rhoads, James B. 1983. *The Role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National Information Systems: A RAMP Study*. Paris, <<http://www.greenstone.org/greenstone3/nzdl?a=d&c=hdl&d=HASH01a52af50b067999677fcb5.2&sib=1>>
- Roberts, David. 1998. The New Australian Records Management Standard. State Records New South Wales. <<http://www.records.nsw.gov.au/publicsector/rk/sacramento/sacramento.htm>>
- Saffady, William. 1998. *Knowledge Management: A Manager's Briefing*. Kansas: ARMA.
- Schellenberg, Theodore. 1956. *Modern Archives : Principles and Techniques*. (이원영 역. 『현대 기록학개론』. 2002. 서울: 진리탐구),
- Schellenberg, Theodore. n.d. *Articles on Archival Appraisal*. (오향녕 역. 현대공공기록의 평가. 『기록학의 평가론』. 2005. 서울: 진리탐구).
- Scott-Jones, David. 2016. From Records Management to Knowledge Management. <<https://blog.soprasteria.co.uk/2016/12/13/from-records-management-to-knowledge-management/>>
- South Africa Parliaments. 2015. Implementing a Records Management Strategy to Complement Parliament's Knowledge Management Initiatives. *31st IFLA Pre-Conference for Library and Research Services for Parliaments*.
- Sutcliffe, Paul. 2003. Building the Corporate Memory in the E-environment. *Records Management*, 13(2).
- Taylor, Hugh A. 1983. Information Ecology and the Archives of the 1980s. *Archivaria*, 18.
- TNA. 2017. *Understanding Digital Continuity*.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understanding-digital-continuity.pdf>>
- Toms, Kenneth. 2004. Knowledge Management Is Dead: Long Live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Journal*, 14(2).
- Wallot, Jean-Pierre & Fortier, Normand. 1998.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Perks, Robert & Thomson, Alistair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Xiaomi, An. 2003. An Integrated Approach to Records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2003(7-8).

Yusof, Zawiyah M, & Chell, Rebert W. 2002. Towards a Theoretical Construct for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Journal*, 12(2).

〈참고 사이트〉

<http://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digital-transition-and-digital-continuity/index.aspx>,

<http://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getting-started/index.aspx>,

<http://www.nationalarchives.gov.uk/information-management/manage-information/planning/knowledge-principles>,

<http://www.nationalarchives.gov.uk/information-management/manage-information/policy-process/digital-continuity/what-is-digital-continuity>,

<http://www.archives.go.kr/next/organ/vision.do>